



봄날의 화사한 정취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중앙대학교의 중앙마루 계단, 교정 전역이 봄꽃으로 물들어 '경희랜드'라는 애칭으로도 불리는 경희대 캠퍼스. 서울 시내 대학 캠퍼스가 가벼운 봄나들이의 명소가 떠오르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벚꽃물결·키스로드...사랑 넘치는 캠퍼스의 봄

중앙대 - 봄꽃 만개한 키스로드 낭만
경희대 - 캠퍼스 감산 벚꽃물결 장관
서울여대 - 삼각숲 진달래 봄 알리고
건국대 - 일감호 둘레길 개나리 만발
연세대 - 연희관 목련 저리도 하얗네

코끝을 스치는 향긋한 꽃내음, 온화한 기온. 그냥 집에 있기에는 왠지 손해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요즘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무르익는 봄을 즐기고 싶다면 인근 대학 캠퍼스를 찾아가자. 서울에는 봄 정취를 한껏 자아내는 명소들을 지니고 있는 대학 캠퍼스들이 있다. 마침 서울관광재단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갈 수 있는 봄꽃 나들이 명소 대학 캠퍼스 다섯 곳을 추천했다.

●봄철 키스로드의 낭만, 중앙대학교

매년 이맘때면 청통 연못부터 중앙도서관으로 이어지는 동산에 연분홍 벚꽃이 만개한다. 중앙대 학생들은 '키스로드'라고

부르는 낭만적인 봄꽃 명소다. 상도동 방향으로 있는 후문으로 나와 중앙대 부속유치원 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면 고구동산이 나타난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곳이지만 봄에 노란 개나리와 벚꽃이 어우러져 사랑받는 곳이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잔디광장과 함께 눈에 들어오는 고풍스런 석조 건물 영신관은 학교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10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 출구 도보 약 10분)

●'경희랜드'의 벚꽃 장관, 경희대학교

봄이 되면 벚꽃이 캠퍼스를 가득 메워 '경희랜드'로 불리는 곳이다. 교시탑 뒤로 난 세 갈래 길 중에 정면 길을 따라 본관 분수대로 가면 커다란 벚나무가 줄지어 선 광장과 만난다.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본관과 분수대 주변에 벚꽃이 핀 모습이 멋지다. 교시탑에서 왼쪽 미술대로 이어지는 길은 은은한 조명과 어우러진 벚꽃 야경을 즐길 수 있는 포인트다.

캠퍼스 인근 회기역 파전 골목은 1970년

대부터 학생들에게 사랑받던 명소가 두툼한 파전과 막걸리의 환상적인 조합을 즐길 수 있다. (지하철 1호선 회기역 1번 출구 도보 약 10분)

●봄에 맞이하는 숲길,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여대의 대표 명소 삼각숲은 사계절의 색깔을 잘 나타내는 나무들로 이루어진 곳이다. 서울여대의 봄은 삼각숲과 제1과 학관에서 시작한다. 삼각숲의 분홍빛 진달래와 제1과학과 앞의 매화가 봄을 알린다. 4월부터는 학생누리관 앞 만주별관에 벚꽃이 만개한다. 학교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는 서울의 마지막 간이역이었던 (구)화랑대역이 있다. 철길 따라 경춘선 숲길이 조성되면서 지금은 철도 공원으로 변신했다.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1번 출구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202번, 1155번, 82A번 타고 5분)

●호수가 일품,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하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머

리에 떠올리는 곳이 일감호다. 인공호수이지만 캠퍼스에 있다고 믿기 어려운 만큼 규모가 크다. 이곳에 4월 초순부터 산책로 따라 벚꽃이 핀다. 호수 북동쪽에 무지개 모양의 홍예교가 있고, 북쪽으로는 등나무 그늘에 앉아 풍경을 바라보는 청심대가 있다. 호수 안에는 백로와 왜가리가 있는 와우도라는 섬이 있다. 호수에서 새들이 한가롭게 노니는 모습이 일감호의 명물이다. (지하철 2호선 또는 7호선 건대입구역 2번 출구나 4번 출구, 도보 약 5분)

●백양로부터 연희관 코스, 연세대학교

신촌 연세대 캠퍼스에서 봄을 느끼고 싶다면 먼저 첫 근대식 병원인 광혜원으로 간다. 한옥 건물과 어우러져 목련과 매화 나무가 있는 뜰이 있다. 언더우드관 정원부터 연희관까지 이어지는 코스는 봄날 연대 캠퍼스 투어의 백미다. 담쟁이덩굴로 뒤덮인 고풍스런 연희관은 인증샷 포인트다. (지하철 2호선 신촌역 2번 또는 3번 출구 도보 약 10분)

oldfield@donga.com

'레저스포츠관광 프로그램' 공모

한국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레저스포츠관광 우수 여행 프로그램 공모' 사업을 진행한다. 공모 대상 레저스포츠는 육상(서바이벌, 번지점프, 카트, 하강시설(짚라인), ATV, 스포츠클라이밍, 루지), 수상(레프팅, 웨이크보드/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서핑/윈드서핑, 스킨스쿠버, 카약/카누, 모터보트/파워보트, 요트), 항공레저(패러글라이딩, 열기구) 등이다.

해당 분야 여행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예정인 단체 또는 기업은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한 업체당 2개까지 복수응모가 가능하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과제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재범 기자

강원랜드, 객실 기부 캠페인 실시

강원랜드(대표 문태곤)는 리조트 객실 기부 캠페인 '하이원 희망나눔 프로그램'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시한다. '하이원 희망나눔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사회복지 종사자, 공익활동가 등에게 여행을 통한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 운영 첫해인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동안 리조트 객실 1262실(약 1억6000만 원)을 무상 제공했다. 올해는 기간과 기부객실 규모를 확대해 4~6월, 9~11월 두 차례에 걸쳐 6개월 동안 총 4000개의 객실을 기부할 계획이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4억8000만 원 수준이다.

김재범 기자

편집 | 고정일 기자 ico@donga.com



봄소식을 먼저 알려준다는 서울여자대학교 제1과학과, 개나리가 피어난 건국대 캠퍼스 일감호 산책로, 연세대 연희관 앞의 목련.



사진제공 | 서울관광재단

서민 창업지원 프.로.젝.트

4월가맹특전
(4.1~4.30)

◆ 전면간판, 돌출간판, 전면섀팅, 내부 메뉴보드판 외 POP물 등 무상지원 (단, 간판은 본사에서 정한 기준 사이즈가 있습니다.)

- ◎ 그릇류 무상지원
- ◎ 홍보물 무상지원
- ◎ 블로그, SNS 홍보본사지원

※청주, 세종, 전주, 광주가맹계약자에 한해서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금 루자 자금이 없어도 열정과 의지만 있으면 다시 한 번 일어설수 있도록 본사에서오문에 필요한 모든것을 지원하겠습니다."

사장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풀어줄 '한식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서민상회'의 창업지원 프로젝트 지금 시작합니다! 서민상회와 함께라면 **성공 창업**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서민을 위한 진정한 서민 프랜차이즈 한 달 후면 확 달라집니다. 매출이 오르는걸 직접 확인하세요!



* 서민국밥, 곤지암 한우소머리국밥 매장 전경

불정기엔 역시 낮에는 밥손님!! 그리고 저녁은 술손님!!



* 그 외 메뉴: 도가탕, 비계장국, 황태해장국, 우육미삼겹살, 우육미달걀비 등
여름철 계절메뉴: 삼계탕, 초계국수, 뽕냉면, 냉면국수, 냉채죽발, 소고기냉채도 있습니다.

서민상회 성공스토리

2019년 1분기

오픈점 및 오픈 예정점

부평삼산점, 대전한남대점, 쌍문점, 울산방어점, 청주터미널점, 아산시청점, 아산인주점, 대전석교동점, 구미점



사업자명 : 주식회사 서민상회
주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숭매로 99 2층 전관
한식프랜차이즈 전문기업 (주)서민상회가
우리의 맛을 이끌어갑니다.

가맹점 대모집
(영남지사 모집)

가맹상담 및 지사문의
02.900.5662
충북·세종지사 043.231.8884